

P9-01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류은순*, 엄영림¹.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¹상지영서대학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국내 위탁급식 전문업체 79개 업체(대기업 8개, 중기업 48개, 소기업 23개)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위탁급식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규모면에서, 총 평균 업장 수는 대기업은 268.2개(160~619개), 중기업 21.9개(5~63개), 소기업 4.7개(1~10개)이었고 총 평균 급식인원수는 대기업 269,184명(140,036~503,500명), 중기업 14,837명(450~75,269명), 소기업 4,065명(930~8,050명)이었다. 총 평균 영양사수는 대기업 298.6명(104명~671명) 중기업 22.2명(6~86명), 소기업 3.8명(1~9명)이었으며 총 평균 조리원수는 대기업 2,616명(1,793~4,863명), 중기업 145.2명(10~662명), 소기업 26.9명(7~59명)으로 나타났다. 총 평균 매출액은 대기업 1,565.2억원(570억~3200억원), 중기업 67.1억원(4~220억원), 소기업 17.4억원(3~65억원)으로 나타났고 업체간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국내 위탁급식업체의 계약방식은 식단가제 방식을 취하였는데 사무실, 공장, 중·고등학교, 대학급식소는 90%이상이고, 병원은 71.4%이었다. 급식소 운영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생안전은 3.40점/5점, 고객만족은 3.05점/4점으로 높게 나타났나 업체 규모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국내 위탁급식업체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과다한 시설투자 2.76점/4점, 낮은 가격 2.73점/4점, 법적 기준의 미비 2.70점/4점) 과다경쟁 2.52점/4점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에서, 대기업의 경우, 과다 경쟁(3.33점/4점), 낮은 가격(3.14점/4점)을, 중기업의 경우, 과다한 시설 투자(2.79점/4점), 법적 기준의 미비(2.70점/4점)을, 소기업은 법적 기준의 미비(2.92점/4점), 식중독 발생(2.83점/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운영상 가장 어려운 사항은 사무실급식소는 전체적으로 수탁사 관리(31.3%), 식수예측(28.4%), 음식 맛 관리(19.4%)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장급식소는 음식 맛 관리(25.5%), 식수 예측(18.0%)이었으며 병원급식에서는 위생관리(31.9%), 음식 맛 관리(29.0%), 종사자 관리(26.1%)였다. 학교급식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과다한 투자비용(34.2%), 위생관리(17.1%), 종사자관리(14.4%)이었고 대학급식소에서도 과다한 투자비용(25.6%), 현금관리(12.8%)가 운영상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나타났다. 각 급식소 유형에 따른 원가구조 비율에서, 대기업은 식재료비 57.3%, 인건비 26.7%, 경비 12.8%, 점포이익은 2.9%이었고 중기업은 식재료비 58.95%, 인건비 25.5%, 경비 11.3%, 점포이익 5.3%이었으며 소기업은 식재료비 60.1%, 인건비 21.3%, 경비 8.9%, 점포이익 10.3%로 나타났다. HACCP 인증 업소는 대기업은 87.5%, 중기업은 18.2%, 소기업은 13.6%가 인증 받은 업소가 있었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P9-02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영양사 인력관리에 관한 조사

류은순*, 엄영림¹.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¹상지영서대학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국내 위탁급식 전문업체 79개 업체(대기업 8개, 중기업 48개, 소기업 23개)를 대상으로 영양사의 채용 및 인력배치 등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영양사 채용에서, 영양사 인턴과정이 있는 비율은 대기업은 100%, 중기업 93.8%, 소기업 59.1%이었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영양사의 채용조건에서 계약직은 대기업은 12.5%, 중기업은 19.1%, 소기업은 8.7%이며 전체적으로 15.4%가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인턴기간은 전체 평균은 4.4개월이고 대기업 6개월, 중기업 4.3개월, 소기업 3.9개월이며 유의적인 ($p<0.01$) 차이가 있었다. 인턴월급은 전체 평균은 56.5만원이고 대기업 47.1만원 중기업 56.5만원, 소기업 62.2만원이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초임 연봉은 2년제 졸업의 전체 평균은 1105.1만원이고 대기업 1,486.8만원, 중기업 1,045.5만원 소기업 1,112.3만원이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4년제 초임 연봉은 전체 평균이 1188.1만원이며, 대기업 1,262.6만원 중기업 1,132.4만원, 1,162.8만원으로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영양사 면허증 수당은 전체 평균 5.4만원이며 대기업 2.7만원, 중기업 6.0만원 소기업 5.3만원이었고, 입사 후 영양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총 평균 26.9개월이고 대기업 33.5개월, 중기업 26.5개월, 소기업 26.0개월로 나타났다. 급식소를 영양사가 공동관리하는 업장이 있는 업체는 대기업은 80%, 중기업은 68.8% 소기업은 45.5%이었다. 영양사의 조리사 겸직여부에서, 전체적으로 24.4%가 겸직하였고 대기업은 37.5%, 중기업은 22.9%, 소기업은 22.7%로 나타났다. 각 업무 팀에서 영양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점포관리 42.6%(대기업은 43.8%, 중기업은 43.4%, 소기업 40.1%), 고객관리 39%(대기업 5.9%, 중기업 4.7%, 소기업 1.0%), 메뉴개발 19.9%(대기업 26.%, 중기업 17.6%, 소기업 23.2%), 영업개발 4.2%(대기업 9.2%, 중기업 4.4%, 소기업 1.6%), 위생관리 18.1%(대기업 11.6%, 중기업 17.5%, 소기업 22.7%), 유통·구매관리 8.7%(대기업 1.8%, 중기업 9.3%, 소기업 10.5%)이었다 영양사의 임직원 비율은 전체적으로 이사와 부장은 2개 업체(2.5%), 차장 7개 업체(8.8%), 과장은 19개 업체(24.1%), 계장/대리는 24개 업체(30.4%), 주임은 25개 업체(31.6%)이었다. 영양사의 이사급 직책은 중기업, 부장급은 대기업에서 각각 2개 업체이고 차장급은 대기업 4개 업체, 중기업 3개 업체이며 소기업에서는 영양사가 이사, 부장, 차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급은 대기업 4개 업체, 중기업 1개 업체, 소기업 1개 업체이며 계장/대리급은 대기업 7개 업체, 중기업 16개 업체, 소기업 1개 업체이고 주임급은 대기업 5개 업체, 중기업 19개 업체, 소기업 1개 업체로 나타났다